



언론보도 스크랩

2014. 10. 10. (금)

고향신문 7면 지역사회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다.

담당부서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고객지원부

담당자 | 담당 신호진 (054-730-8556)

■ 총 1쪽 ■ www.nym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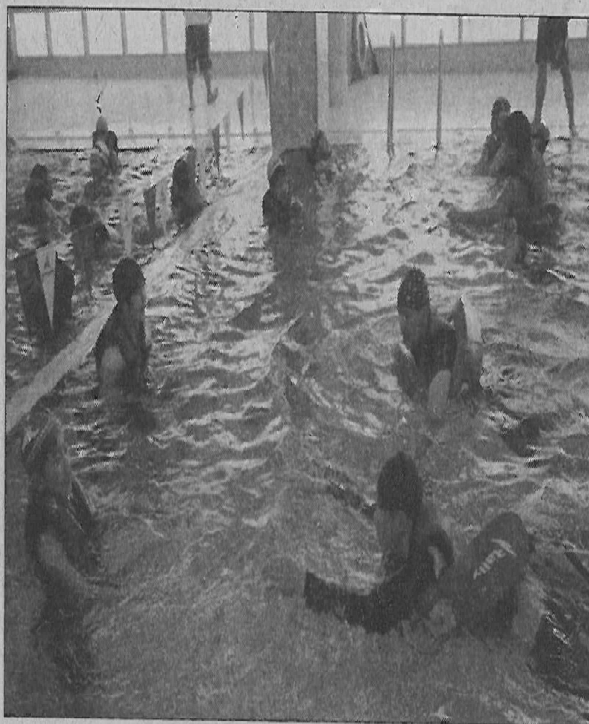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으로 안전한 해양체험 즐겨요

6일부터 2박 3일간 광주 동신중학교 학생 210명 해양체험활동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원장 유홍룡, 이하 해양센터)는 광주 동신중학교(교장 신만철, 이하 동신중) 학생 210명을 맞이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해양체험 과정을 진행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학교 주 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련활동 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정책적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는 200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22일 개정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규정 및 관련 법령은 150명 이상의 청소년 수련활동일 경



▲ 광주 동신중학교 학생들이 해양안전 프로그램 중 부력체를 이용해 구조 체험을 하고 있다.

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동신중학교 학생들은 활동프로그램, 지도자 전

문성, 공간의 설비 확보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소년 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양체

험 활동을 하게 된다.

해양센터 유홍룡 원장은 “이번 광주 동신중학교 체험은 청소년 활동 인증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위험요소가 제거된 안전한 체험공간에서 해양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해양지식을 쌓으며 미래 해양 강국의 주역이 될 꿈을 품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2013년 7월 개원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국립시설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해양센터는 학교단체 수련활동과 해양 특성화 캠프, 그리고 취약계층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